

개혁개방 성립기(1976~1980) 중국공산당의 문화예술 정책

김은수*

<目 次>

1. 서론
2. 덩샤오핑의 '쌍백'과 '4항원칙 견지'의 출현과
문예계의 새로운 모색
3. 문예공작자 제4차 전국대회에서의 논쟁과
'이위(二爲)' 문예원칙의 성립
4. 결론

1. 서론

1990년대 초반 장쩌민(江澤民)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내세우자 중국에서는 문화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정부는 2000년 10월에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중국공산당 제10차 5개년 계획 제정 의견」에서 처음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였다. 이후 문화산업은 문화제품의 생산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적 업종이며, 정부가 국민소질을 제고하고 공익성 문화를 창설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인 문화사업과 함께 사회주의 정신문화 건설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¹⁾ 최근 국내외의 중국문학계와 문화학이나 문화콘텐츠학계는 이러한 중국의 문화산업과 문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조교수

1) <http://cpc.people.com.cn/GB/64162/71380/71382/71386/4837946.html>: 沈壯海, 『文化強國之路』,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2014년, 168쪽. 奚洁人 主编, 『科學發展觀百科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년.

화사업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²⁾

중국의 문화산업과 문화사업은 현재도 공산당의 선전공작의 한 분야인 문화·예술정책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필자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방송을 연구하면서³⁾ 이것을 재확인하였고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선전공작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⁴⁾ 중국의 문화·예술정책은 중국공산당의 중앙선전부(이하에서 중선부로 약칭), 국무원 산하의 문화부,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 등이 담당하고 있다.⁵⁾ 중선부는 이데올로기 방면의 공작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론 연구와 학습을 담당하고, 사회여론을 인도하며 정신적인 생산품의 생산을 거시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전국의 선전·문화·출판공작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을 책임지고, 성·시·자치구의 선전 부문에 대한 지도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중선부는 1924년 5월에 처음 만들어졌고 문화혁명 시기에 취소되었다가 1976년 10월에 다시 성립되었다.⁶⁾ 문화부는 1993년 3월 제8기 전인대 제1차 회의의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따라 문화사업을 직접 처리하는 것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점차 전환하였고, 행정수단에 의한 관리에서 법률·경제·행정수단을 결합한 종합관리

2) 이동배·부티탄호영·김기덕, 「중국문화산업 연구동향 — 2009년-2013년 중국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1호, 2015년 3월. 馬建, 「改革開放以來的中國文化產業研究: 源頭與脈絡」, 『北方經濟』, 2011년 21기.

3) 金銀洙, 「중국의 TV방송 導入과 TV 드라마의 定着 過程」, 『中國近現代史研究』 제66호, 2015년 6월.

4)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레닌주의 정당 조직이며, 경제발전에 정권 지속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두고 국가의 폭력수단을 독점한 집권당이다. 본고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中央宣傳思想工作領導小組)와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와 중앙조직부(中央組織部),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와 중앙정법위원회(中央政法委員會),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林相範 교수의 조언에서 출발하였다.

5) 박영순, 「대작상업 영화의 주선율화'와 이데올로기: 〈영웅〉, 〈공자〉를 중심으로」, 민성기와 공저, 『중국연구의 동향과 쟁점』, 學古房, 2016년, 37쪽. 2013년에 中國新聞出版總署와 中國廣播電影電視局이 통합되어 中國新聞出版廣電總局으로 되었다.

6) 譚宗級·葉心瑜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實錄, 4: 改革與巨變 — 開創現代化建設新局面(1977—1983)』(上), 吉林人民出版社, 1994년, 77쪽. 중선부는 현재 理論局, 宣敎局, 新聞局, 網絡新聞處, 輿情局, 新聞閱評組, 文藝局, 中央精神文明建設指導委員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務院辦公廳秘書局·中央編委辦公室綜合司 編, 『中央政府組織機構』, 中國發展出版社, 1995년, 278-291쪽.

로 그 방법을 바꾸었다.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 선전공작을 강화하고, 중앙라디오와 CCTV를 지도 관리하며 여론의 방향을 파악하는 임무 등을 갖고 있다.⁷⁾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시진핑(習近平)이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하면서 출판되었던 『중국몽과 중국의 길 총서(中國夢與中國道路總書)』의 제5편으로 나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發展道路)』이 현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⁸⁾ 또한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의 문화이론과 정책을 연구하였던 량평청(梁鳳成)은 『중국공산당과 당대 중국문화 발전연구』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이론과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매 역사단계의 주요한 문제와 시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⁹⁾ 위 두 연구는 마오쩌둥 이래의 주선율과 덩샤오핑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산업으로써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무해한’ 다원화를 지원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에 따라 서술되었다. 역사학자인 량평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에 비해 특정 상황에 기이한 문화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최근 문제가 되었던 극단적인 신좌파의 주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덩리첸의 회고록인 『덩리첸 자술』과 같은 것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정파의

7) 國務院辦公廳秘書局·中央編委辦公室綜合司 編, 위의 책, 278-291쪽.

8) 本書課題組, 『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發展道路』, 中央文獻出版社, 2013년, 98-99쪽.

9) 량평청은 중국공산당의 기존 문화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과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및 장원톈(張聞天)의 「항전 이래 중화민족의 신문화운동과 앞으로의 임무(抗戰以來中華民族的新文化運動與今後任務)」 등으로 대표된다. 둘째, 이러한 혁명문화는 프롤레타리아 정치를 위해 복무하고 공농병(노동자, 농민, 병사)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문화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30년간 지속되었다가 중공 제11기 3중전회 이후 점차 변화되었다. 즉 문화와 정치·경제 관계의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되었으며 문화의 계급적 성격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문화의 주동성과 독립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넷째, 그 결과 일원적인 문화는 점차 해체되었고 다원화된 문화 시대가 등장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의 주도 문화는 마르크시즘의 지도 아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복무하는 주류문화이며, 고급문화는 지식추구와 심미적 규칙을 묵수하면서 문화적 자율성을 견지하는 업속주의의 문화이고, 대중문화는 민중의 문화적 수요와 심미적 취향을 목표로 하고 자본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진다. 梁鳳成, 『中國共產黨與當代中國文化發展研究』, 中共黨史出版社, 2013년, 14-15쪽.

주장에 대한 균형 맞추기에 실패한 면이 보인다.¹⁰⁾

본고는 덩샤오핑 체제와 덩샤오핑의 문예사상이 성립되는 시기인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이루어진 중국공산당의 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문학·문화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 시기 문화정책을 검토하면서 논쟁 자체와 이론에 중점을 두고 당대의 정치적·역사적 배경을 소홀히 함으로써 지나친 추상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역사 분야의 연구자들은 문화정책과 정치사건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여 사실과 인과관계에서 많은 의문점을 보여준다. 필자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던 중공중앙의 지도자와 중선부 지도자들의 문화정책관을 이들과 중국공산당이 발표하였던 공식문건과 자유주의와 좌파 양측의 문장과 회고들을 통하여 비교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당시 문화계의 반응을 역사학적인 접근법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2. 덩샤오핑의 ‘쌍백’과 ‘4항원칙 견지’의 출현과 문예계의 새로운 모색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하였고, 10월 6일에는 ‘4인방’이 체포되었다. 바로 그날 저녁 중앙대외연락부 부장 경야오(耿飜, 1909~2000)는 화궈펑(華國鋒, 1921~2008)의 지시에 따라 중앙광과사업국을 장악하고 문화혁명 이전의 중선부를 계승한 중앙선전조를 담당하였다. 중앙선전조는 전국 선전공작을 장악하고 사회 각 계층의 사상 동태를 점검하며 신문·잡지·통신사·라디오의 중요 문장과 보도, 영화와 텔레비전의 뉴스를 심사하였다.¹¹⁾

10) 鄧力群, 『鄧力群自述——十二個春秋(1975-1987)』, 香港大風出版社, 2006년. 이것은 특히 덩샤오핑 체제 시대의 중국의 문화·예술정책은 중선부를 이끌어가던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후야오방(胡耀邦, 1915~1989), 주허우쩌(朱厚澤, 1931~2010)와 좌파적 입장의 후차오무(胡喬木, 1912~1992), 덩리쥘(鄧力群, 1915~2015), 왕런즈(王忍之, 1933~) 사이의 대립 속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11) 당시 중선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이래 17년간의 영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해서 과거의 금지를 해제시켰다. 江春澤, 『在耿飜领导的中央宣传口的日子』, 『炎黄春秋』2010년 4기. 또한 1977년 1월에는 장기간 ‘4인방’에 의해 금지되었던 가곡 〈洪湖赤衛隊〉, 현대극곡 〈八

중앙선전조는 새로운 중공중앙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1976년 11월 중순에 선전공작좌담회를 개최하여 '4인방' 비판 임무를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1977년 2월 7일 중앙선전조의 통제를 받는 『인민일보』는 「문건을 잘 배워 핵심을 잘 파악하자(學好文件抓好綱)」이라는 사론을 발표하여 화궈핑 집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양개범시(兩個凡是)'를 정식으로 내세웠다.¹²⁾ 이때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후샤오무의 비서였던 주자무(朱佳木, 1946~)의 지적에 따라 국무원 재정소 조 부조장 덩리췌이 국무원 부총리 왕전(王震, 1908~1993)에게 이 사설이 덩샤오핑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왕전의 충고를 듣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한 덩샤오핑은 1977년 7월 제10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 부주석의 자리로 복권할 수 있었다.¹³⁾

당시 화궈핑은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장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자신의 문선반(文宣班)으로 장핑화(張平化, 1907~2001), 후야오방, 우렁시(吳冷西, 1919~2002) 등을 선택하였다. 화궈핑은 1977년 10월 31일에 중선부를 회복시키고 장핑화를 중선부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장핑화는 문혁 이전 타오주(陶鑄, 1908~1969)가 중선부장이 되었을 때 왕런충(王任重, 1917~1992)과 함께 데려 온 사람으로 원래 중선부 상무 부부장을 담당했었다. 그 뒤에 장핑화는 후난성위 제2서기에 재직하면서 화궈핑보다 상급자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 화궈핑은 동시에 1962년부터 2년간 후난에서 함께 일했던 후야오방을 중앙당 교 부교장에 임명하였다.¹⁴⁾

한편 복권된 덩샤오핑은 후선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교육 분야에 대해 발언하였다. 그는 1977년 8월 8일 과학과 교육공작 좌담회에서 건국 이래 17년간의 상황을 검토한 1971년의 보고서를 비판하면서 지식인들에 대해

一風暴), 무용극 〈小刀會〉, 評彈 〈蝶戀花〉가 공연되어 많은 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譚宗級·葉心瑜 主編, 위의 책, 11쪽.

12)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當代中國意識形態風雲錄』, 警官教育出版社, 1993년, 481, 484-485쪽.

13) 馬立誠, 『最近四十年中國社會思潮』, 東方出版社, 2015년, 21-22쪽.

14) <http://sh.focus.cn/msgview/10620/152194244.html> 溫相, 「毛泽东身后的三驾马车: 叶剑英华国锋汪东兴同盟」 2004년 7월 26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백가쟁명'의 방침에 따라 토론에서의 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하였다. 다시 그는 9월 19일 교육부의 책임자급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문화혁명 이전의 17년을 부르주아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독재를 했다"는 이른바 '흑선독재(黑線專政)'론과 "대다수 지식인의 세계관은 부르주아적이라는 주장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두 개의 평가(兩個估計)'론을 비판하였다.¹⁵⁾

덩샤오핑의 비판은 교육부와 『인민일보』 편집부가 1977년 11월 18일에 소집한 교육공작자 좌담회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작가이자 중선부 이론조 조장 구상(顧驥, 1930~2015)의 주재 아래 『인민일보』 편집부는 11월 21일에 문예계 일부 동지들을 초청하여 '문예흑선독재'론을 비판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¹⁶⁾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4인방'이 '문예흑선독재'론을 이용하여 문화혁명 이전의 우수한 작품들을 비판하고 우수한 문예공작자를 박해하고 문예전선의 지도권을 장악하는 죄상을 벌었다고 비판하였고, 『인민문학』을 비롯한 각종 문예잡지에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게재되었다.¹⁷⁾ 그러자 당시 중공중앙에서 선전공작을 담당하였던 왕둥싱(汪東興, 1916~2015)은 「문예좌담회 기요」(1966.4.)는 "마오쩌둥이 직접 고친 것인데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였지만, 문화부와 해방군 총정치부 문화부는 1978년 1월 11일과 2월 6일에 '문예흑선독재'론 공격에 동참하였다. 문화부는 4월에 개최된 '4인방' 비판 만인대회에서 문예공작자의 원한을 풀어주었고, 5월 27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개최된 중국문학예술연합회(중국문련) 제3기 제3차회의에서 '문예흑선독재'론을 재차 비판하면서 중국문련과 5개 문예협회의 정식 회복을 선포하였다.¹⁸⁾ 중공중앙은 1979년 5월에 「문예좌담회 기

15) 鄧小平, 「關於科學和教育工作的幾點意見(1977.8.8.)」, 45-47, 54-55쪽; 「教育戰線的撥亂反正問題(1977.9.19.)」, 『鄧小平文選(1975—1982)』, 人民出版社, 1983년, 63-64쪽.

16) 顧驥, 「此情可待成追憶—我與晚年周揚師」, 王蒙·袁鷹 主編, 『憶周揚』, 內蒙古人民出版社, 1998년, 447-448쪽. '문예흑선독재론'은 문화혁명 초기 린바오(林彪, 1907~1971)가 장칭(江青, 1915~1991)에게 위탁하여 개최된 군대 문예공작자좌담회의 「기요」에서 제출된 것으로 "마오 주석 사상과 대립한 반당·반사회주의의 흑선이 우리의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17) 嚴文井, 「文藝黑線專政論與陰謀文藝」, 『人民文學』, 1977년 12기.

18) 王洪模 等著, 『1949—1989年的中國: 改革開放的歷程』, 河南人民出版社, 1989년, 96쪽; 本

요」를 정식으로 철폐하였다.¹⁹⁾

중선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상 해방적 문예정책은 문화·예술 각 분야와 상호 수용적 작용을 하였다. 그 첫 출발은 류신우(劉心武, 1942~)가 1977년 11월에 『인민문학』에 발표한 단편소설 〈반주임(班主任)〉이었다. 〈반주임〉은 곧 바로 라디오 방송국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상흔문학’의 효시가 되었다.²⁰⁾ 또한 월극(粵劇) 〈홍루몽〉이 상연되고 CCTV에서 미국의 TV 드라마인 〈안나 카레리나〉가 방영되며 홍콩 가수 시시우란(奚秀蘭)의 테이프가 판매되었다. 뒤이은 문화계에 대한 ‘평반’운동과 문예정책에 대한 조정은 문예계의 분위기 전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련의 문학잡지들이 복간되거나 창간되었고 많은 예술가들이 등장하였다.²¹⁾

‘문예후선독재’론과 ‘두 개의 평가’가 비판받고 문화예술계가 기지개를 펼 무렵, 덩샤오핑과 화궈핑의 권력 관계에서 결정적인 위치 전환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화궈핑의 ‘양개범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實踐是檢驗真理的唯一標準)」 논쟁이었다. 이 문장은 당시 중앙당교 교장 후야방의 결정에 따라 1978년 5월 10일 중앙당교에서 발간하였던 『理論動態』에 게재되었고, 다음날 과학지식의 보급과 사회과학과 문화 방면의 기본 영역에 대한 선전을 담당하기 위해 갓 복간된 『光明日報』에 전재되었다.²²⁾ 왕둥싱은 5월 18일에 중선부장 장핑화에게 이것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장핑화는 중선부 간부들에게 이 문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 지도그룹 내에서만 의견을 발표하도록 통제하였다.

그러나 ‘진리표준’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점차 열기를 더해갔고, 중국사회과학

書課題組, 『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發展道路』, 28-29쪽.

19) 「中共中央批轉總政治部〈關於建議撤銷1966年2月部隊文藝工作座談會紀要的請示〉的通知(1979.5.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 重要文獻選編 —』(上), 人民出版社, 1982년.

20) 李楊, 「重返新時期文學的意義」, 程光燁 編, 『重返八十年代』, 北京大學出版社, 2009년, 5쪽.

21) 王夢, 「不革命行嗎? 原中國文化部長跟你談中國政治」, 臺北, 時報文化, 2013년, 255, 257쪽.

22)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위의 책, 493쪽.

원 연구생원 원장 저우양(周揚, 1908~1989)이 '진리표준' 토론의 의의와 성질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내렸다. 그는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가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 '이론과 실천 관계에 대한 토론회'에서 "'진리표준' 문제는 철학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상정치문제이며, 공산당과 국가의 앞길과 관련된다"고 천명하였다.²³⁾

덩샤오핑은 7월 21일에 장펑화를 만나 또 다시 '금지령'을 내리지 말고 '금구'를 설정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지만, 장펑화는 8월에도 여전히 중선부 지방 간부들에게 '진리표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덩샤오핑의 입장에 동조하는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1978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리표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나갔다. 결국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2명의 당·정·군 주요 책임자가 참가하여 6개 조로 나누어서 진행된 중공중앙공작회의는 화궈핑이 주장하였던 '양개범시'를 정식으로 부정하였고, 1979년부터 공산당의 공작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중국공산당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11기 3중전회를 개최하여 백화제방·백화쟁명의 '쌍백' 방침을 견지하고 사상해방을 집행하며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강령을 확정하였다.²⁴⁾ 그렇지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모델의 기본 성격에 대한 인식은 더 많은 모색의 시간이 필요하였다.²⁵⁾

이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진 덩샤오핑은 선전공작 부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화궈핑을 지지하였던 장펑화 대신에 후야오방을 1978년 12월 28일에 중선부장으로 임명하였다. 후야오방은 12월 31일 중선부 지도자 회의에서 1979년 1월에 이론공작무허회(理論工作務虛會)²⁶⁾를 개최할 것을 선포하였다. 무허회의의 가장 큰 목표는 '양개범시'의 타도를 선전하는 것이었다. 후야오방은 이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사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현대화건설의

23) 程中原·王玉祥·李正華, 『1976~1918年的中國』, 中央文獻出版社, 1998년, 117-118쪽.

24) 譚宗級·葉心瑜 主編, 위의 책, 163-164쪽.

25) 鄧安慶·鄧名瑛, 『文化建設論 — 中國當代的文化理念及其系統構建』, 湖南人民出版社, 1998년, 18쪽.

26) 務虛會란 일반 단위가 연초나 초기 단계에 회의를 소집해서 그 해나 그 단계의 계획 안배 및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정하고 이후 공작의 준칙 및 대강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실천과 이론을 긴밀히 결합시켜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의 학풍을 고취시키는 것이 전당의 공작 중심임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후야오방은 회의장에 배포한 문건에서 백화제방과 백가쟁명을 진정으로 실현시켜야 이론공작과 문화사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⁷⁾ 특히 1월 19일의 시가창작좌담회에 참가하였던 후야오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연으로 박해받던 작품과 작가의 명예회복과 문예계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던 문예계 인사들을 격동시켰다.²⁸⁾ '하나의 작품이 좋다 나쁘다는 한 개인이나 소수가 말할 수 없으며, 인민군중과 역사의 장기적인 검증에 의해 이야기될 수 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대등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혁명으로 엄청난 통제와 고통을 경험했던 문예계 인사들을 흥분시키는 주장이었다. 그는 1월 30일에는 영화공작자 회의, 2월 10일에는 전국예술교육공작회의, 3월 30일에는 전국문예계지식인 좌담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였다.²⁹⁾ 특히 후야오방은 젊은 문예공작자들이 자신을 방문하자, 기존의 당의 오류는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것과 민주를 드높이는 것에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거침없이 언급하였다.³⁰⁾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천황메이(陳荒煤, 1913~1996)도 '문학'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人民日報』에 게재함으로써 '금구' 돌파에 일조하였다.³¹⁾

제11기 3중전회가 끝나고 무허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정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후차오무도 동의하였다. 무허회가 시작되자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고 급속히 열기가 고조되었다. 춘절(1월 28일) 직전에 중국

27) 程中原·王玉祥·李正華, 위의 책, 279, 289쪽; 蕭冬連, 『中華人民共和國史10: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香港中文大學, 2009년, 26-42쪽; 許保家, 『讓思想衝破牢籠: 胡耀邦出任中宣部長的日子(1978—1980)』, 香港, 天行健出版社, 2010년, 33-35쪽. 胡耀邦, 「理論工作務虛會引言」(1979.1.18.), 『胡耀邦文選』, 人民出版社, 2015년, 116, 121쪽. 후야오방의 주장은 『人民日報』 사론에 반영되었다. 「偉大的轉變和宣傳工作的根本任務」, 『人民日報』 1979년 1월 16일.

28) 『文藝報』 편집부와 『文學評論』 편집부는 1978년 12월 5일에 문학·희극·영화 공작자와 출판사·잡지의 편집인들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

29) 許保家, 위의 책, 310-313쪽.

30) 蕭冬連, 위의 책, 205-212쪽.

31) 陳荒煤, 「曉風致陳荒煤的信」, 『人民日報』 1979년 2월 3일.

사회과학원 원장 후차오무는 부원장 덩리첸에게 무허회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면서 사회주의·프롤레타리아 독재·당의 영도·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걱정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후차오무가 비판한 사람은 『人民日報』 부총편집 왕뤄수이(王若水, 1926~2002)였다. 또한 후차오무는 시단의 '민주의 벽'과 같은 사태가 발전하면 1979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체결된 중·미수교 이후 점차 늘어나게 될 외국인의 눈에 중국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들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³²⁾ 후차오무의 걱정에 대해서는 '4인방'의 척결이 새로운 문화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였던 공산당 원로간부들과 인민해방군 선임장교들도 공감하였다. 후야오방은 후차오무와의 대화에서 당면한 형세가 좋으며 절대로 '우파 반대(反右)'운동은 안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한 덩샤오핑은 후차오무의 우려에 동감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벌어진 베트남과의 국경전쟁에서 패배하자 덩샤오핑의 입지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³³⁾ 이때(1979년 3월) 중앙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의 조정 공작을 진행하면서 나아가 4개현대화의 신속한 실현에 필요한 기초를 안착하기 위한 12개의 조치를 주장하였는데, 특히 마지막 12번째에서 과학·교육과 문화·위생 사업에 대한 투자와 경비를 점차 증가시켜 그것과 생산건설 사업의 발전이 서로 적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시하였다.³⁴⁾

이러한 여러 요인이 서로 연관되어 덩샤오핑은 3월 28일 무허회에서 "중국이 4개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사회주의 건설을 반드시 견지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치를 반드시 견지하고, 공산당의 영도를 반드시 견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반드시 견지한다"는 사상·정치상 4항의 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⁵⁾

32) 鄧力群, 위의 책.

33) 로드릭 맥파커 엮음, 김재관·정해용 옮김, 『중국현대정치사』, 푸른길, 2012년, 446~447쪽; 蕭冬連, 위의 책, 57-58쪽; 許保家, 위의 책, 310-313쪽.

34) 李先念, 「在中央工作會議上的講話(1979.4.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위의 책, 109, 134쪽.

35) 鄧小平, 「堅持四項基本原則(1979.3.30.)」,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앞의 책, 87쪽.

‘4항원칙 견지’는 명백히 ‘반우’를 지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재개된 무허회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실제로 덩샤오핑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상당히 강했다. 1979년 봄 사상전선에서 한쪽은 사회주의 사업에 불리한 사상 경향을 시정하고 잘못된 사상의 자유로운 범람을 피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한쪽은 실사구시·사상해방·과학과 민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계속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실무공작을 하는 간부들은 질서 유지에 관심을 두고 ‘민주’에 대해 반발하였지만, 『人民日報』를 주재하던 후지웨이(胡績偉, 1916~2012) 같은 간부들은 ‘좌’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때 중선부장으로 이데올로기를 책임져야 했던 후야오방은 ‘4항원칙 견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사상 해방을 추구하였다.³⁶⁾

사상 해방의 물결이 다시 흐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회과학원이 1979년 5월 4일에 개최한 ‘5·4운동’ 60주년 기념식은 ‘민주와 과학의 발양’을 강조하였는데, 저우양은 「세 차례 위대한 사상해방운동(三次偉大的思想解放運動)」에서 린바오와 ‘4인방’이 정한 금령과 금구를 철저히 타파하고 사상이 굳어있는 동지들의 입장을 교정하도록 촉구하고 사상해방을 위해 자유토론을 허락하고 실천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³⁷⁾ 이때 『人民日報』는 사상 해방을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연속 5편의 ‘쌍백’ 방침과 관련된 기사를 발표하여 ‘극좌’노선에 대한 비평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放’과 ‘爭’의 변증법적 관계를 내포하고 문예창작의 소재를 더욱 다양화하고 사상내용의 새로움을 만들면서 동시에 예술형식의 창신에 주의하고 문예공작자의 적극성을 독려하여 문예 대오의 전투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³⁸⁾ 그러자 류신우의 단편소설 〈애정의 위치〉(1978년 말 발표)를 효시로 하여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영화를 비롯한 다른 예술작품에서도 ‘군사’ 문제에서 ‘인간’ 문제로 주제가 전환되면서 가족애·우정·애정과 같은 인간의 내심세계를

36) 蕭冬連, 위의 책, 76, 79-81, 166-178쪽.

37) 田瑜, 「群衆文化運動的開拓者」, 王蒙·袁鷹 主編, 위의 책, 185-187쪽. 周揚, 「三次偉大的思想解放運動」, 邱石 編, 『解放文選(1978-1998)』上, 經濟日報出版社, 1998년, 112쪽.

38) 本書課題組, 『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發展道路』, 위의 책, pp.98-99.

다루는 ‘인성’이 복귀하였다.³⁹⁾

3. 문예공작자 제4차 전국대회에서의 논쟁과 ‘이위(二爲)’ 문예원칙의 성립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풍조는 문화혁명 시기의 마오쩌둥 문예이론을 고수하던 선전공작자와 이론가들의 우려와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마오쩌둥이 생각하였던 문화가치는 ‘정치표준을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이었다. 그는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근본적인 문제이며 원칙문제이다”라고 하고, 나아가 “문예는 공농병을 위해 복무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를 위해 복무한다”는 ‘이위(二爲)’를 제시하였었다.⁴⁰⁾

그런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개의 평가’가 공격받기 시작할 무렵인 1978년 6월 13일, 『人民日報』에는 ‘마오 주석의 혁명문예노선’을 해석하면서 문예는 공농병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문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를 위해 복무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당의 문예정책을 진지하게 조정하자(認真調整黨的文藝政策)」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중대한 변화로 장기간 받아들여졌던 ‘문예는 프롤레타리아 정치를 위해 복무하고, 공농병을 위해 복무한다’에 대한 의문을 명확히 제출한 것이었다. 이후 기존의 문예론에서

39) 蕭冬連, 위의 책, 205-212쪽.

40) 鄧安慶·鄧名瑛, 위의 책, 22쪽. 193년대 초 좌련(左聯)이 성립된 뒤에 쉰추바이(瞿秋白)를 중심으로 해서 문예의 대중화를 위해 문예를 노동자·농민·군중에 보급하고 많은 노동군중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대중문예이론이 제시되었다. 丁守和, 『瞿秋白思想研究』, 四川人民出版社, 1985년, 466-467, 475쪽. 마오쩌둥은 1942년에 적과 싸워 이기려면 문화적 군대도 있어야 하고, 노동자·농민·병사·도시 빈민부르주아를 위한 문예 활동을 해야 하며 혁명적 사상투쟁과 예술투쟁은 반드시 정치투쟁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毛澤東,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1942.5.)」, 꾸어모루어 외, 김의진·심혜영·성민엽 옮김, 『중국현대문학전집20: 문학과 정치 — 현대중국의 문학이론』, 중앙일보사, 1989년, 259, 261, 265-266, 274쪽.

강력하게 비판받던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여 인기를 끌게 되자 '쌍백'을 중심으로 한 사상해방과 공산당의 영도라는 정책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문예정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리젠(李劍)이 1979년 6월에 '인성' 강조론과 상흔문학을 비판하여 문예계에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논쟁은 시작되었다.⁴¹⁾ 그러자 문화부는 9월에 자신의 하부단위에게 다음과 같은 관리공작 지침을 내려 보냈다. "현재 희곡과 곡예공작의 중요 목표는 린바오와 '4인방' 극좌노선의 폐해를 숙청하고 사상을 해방하며 민주를 발양하여 '쌍백' 방침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부문의 희곡과 곡예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도까지 완화시키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일부 극단과 민간예술가들은 과거의 불량한 희극들과 심지어는 문화부가 금지시킨 것까지 상연하고 있다. 예술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욱 잘 복무하도록, 우리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사상·정치공작을 통하여 지도해야 한다."⁴²⁾ 후야오방도 사상·정치공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좌'와 '우'의 경향이 모두 존재한다. 신문은 나쁜 현상도 폭로해야 하지만, 안정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전해야 한다. 많은 문제는 정법 부문이 해결할 수 없으며 사상공작이 좋은 방법이다. 먼저 반드시 신문·라디오·출판·교육·문예공작이 거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⁴³⁾ '쌍백'에 입각한 사상해방의 조류와 '4항원칙 견지'에 따른 사상·정치공작의 기본 방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그러자 당시 덩샤오핑의 문건을 기초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던 중앙비서처의 비서 후차오무는 197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3,000여명이 모였던 문예공작자 제4차 전국대회(제4차 문대회)를 위하여 10월 29일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에 "과거에는 정치표준이 문예표준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 문예 발전에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이제 문예는 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정치

41) 李劍, 「歌德與缺德」, 『河北文藝』 1979년 6기.

42) 「文化部關於加強戲曲、曲藝上演節目的領導和管理工作的通知(1979.9.3.)」, 文化部政策研究室辦公廳 編, 『中華人民共和國現行文化行政法規匯編(1949—1985)』, 文物出版社, 1988년, 15쪽.

43) 胡耀邦, 「思想政治工作要積極地抓(1979.10.15.)」, 『胡耀邦文選』, 위의 책, 223-224쪽.

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⁴⁴⁾

다음 날 덩샤오핑은 신시기의 공산당의 구체적인 지도사상과 방침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대회 축사를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4개 현대화를 위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문예와 인민대중의 관계, 문예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 문제였다.

“4개 현대화의 숭고한 사업에서 문예 발전은 인민의 정신생활의 여러 방면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신인(新人)을 배양하고 전체 사회의 사상·문화·도덕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도 다른 분야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임무이다. 문예공작자는 교육공작자·이론공작자·신문공작자·정치공작자 및 다른 유관 동지들과 서로 협력하여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4개 현대화를 방해하는 사상 습관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유효한 투쟁에 나서야 하며, 우수한 도덕적 분위기를 배양하고 고도의 발전한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 문예는 광대한 인민군중을 위한 것이지만 우선 공농병을 위해 복무해야 하며, 동시에 백화제방을 견지해서 다양한 형식과 풍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창하고, 문예공작자는 자신의 예술 표현 능력을 풍부하게 하고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당은 문예공작을 잘 영도해야 하는데, 문예의 특징과 발전규칙에 근거해서 지원해야지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⁴⁵⁾

이상과 같은 덩샤오핑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문예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은 대회를 주관한 저우양이 다음과 같은 11월 1일 보고였다.

“‘4인방’을 물리친 지 3년래 문예 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물결과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가들은 예민한 관찰력과 대담한 용기로 린바오와 ‘4인방’에게 받은 상처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들‘상흔문학’, ‘폭로문학’이라고 질책할 수 없다. 인민은 건강한 문예가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예의 역량은 인민이 경험한 과거의 고통에 대해 인식을 심화하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경험을 흡수해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 거듭되지 않도록

4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下), 人民出版社, 1982년, 943-944쪽.

45) 鄧小平, 「在中國文學藝術工作者第四次代表大會上的祝辭(1979.10.30.)」, 『鄧小平文選』(1975-1982), 위의 책, 181-182, 184-185쪽. 梁鳳成, 위의 책, 103쪽.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문학은 인민을 단결시켜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사회분위기를 타락시키는 작품들은 마땅히 비평받고 제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와 예술은 서로 다르다. 도식적이고 설교투고 공식화하고 개념화하고 구호를 외치는 작품은 생활의 진실과 예술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문예의 정치적 작용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문예와 정치의 관계, 문예와 인민 생활의 관계, 문예에서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아직도 문예계에는 사상해방이 부족하다. 현재 ‘쌍백’ 방침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예창작의 자유가 있다.”⁴⁶⁾

저우양이 이 보고는 문예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간주되었다. 『상해문학』 부주편인 리쯔윈(李子雲, 1930~2009)은 회의에 참가하였던 상하이의 작가들의 의견을 모아 ‘문예는 정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기존의 문예와 정치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였다.⁴⁷⁾

한편 일부 인사들은 1979년의 제4차 문대회가 ‘안전감’을 결여하였다고 비판하였고, 심지어는 일부 작가들이 체포되었다는 소문까지 들었다. 당시 중국국내의 정치 상황도 ‘사상 해방’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다. 시단의 ‘민주의 벽’이 계속되자, 베이징시는 12월 6일에 대자보를 금지시켰다. 덩샤오핑은 1980년 1월 16일 중공중앙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공민의 ‘4대권리’(大鳴, 大放, 大字報, 大辯論)가 현재 적극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므로 취소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어서 그는 문예작품이 ‘4항원칙 견지’를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문예정책은 ‘쌍백’ 방침과 ‘삼불주의(모자를 씌우지 않고, 몽둥이로 패지 않고, 포대로 덮지 않겠다)’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안정과 단결이 없으면 민주와 ‘쌍백’ 방침 같은 것은 모두 없다. 안정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전·교육·이론·문

46) 周揚, 「繼往開來, 繁榮社會主義新時期的文藝 — 在中國文學藝術工作者第四次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79년 11월 20일.

47) 本刊評論員, 「爲文藝正名 — 駁“文藝是階級鬥爭的工具”說」, 『上海文學』 1979년 4기; 李子雲, 「探病中周揚」, 王蒙·袁鷹 主編, 위의 책, 539쪽.

에 부문의 동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 사상의 정확성, 당의 영도, 당과 인민군중의 일치 단결, 사회주의 중국의 거대한 성취와 무한한 앞날과 함께 사회주의 중국의 장래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 당대 청년들의 최고사명이자 명예임을 강력하게 선전해야 한다.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은 모두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자신의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임무로 삼아야 한다. 물론 앞으로는 문예가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문예는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예공작자는 작품의 사회적 영향과 인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문예공작은 특히 청년의 사상 경향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며 사회의 안정과 단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예계의 모든 동지들은 늘 자각적으로 대국을 중시하고 인민과 청년의 사회주의에 대한 각오를 제고하기 위하여 열심히 분투해야 한다.”⁴⁸⁾

그러자 후야오방은 문예정책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관점이 없으면 선전·문예공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우양·주무즈 등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덩샤오핑의 지시에 따라서 ‘쌍백’ 방침을 고수하며 예술에서 민주를 드높이고 ‘삼불주의’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문예가 정치의 구호에 종속되지 않겠지만 안정과 단결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제4차 문대회 정신을 성실히 학습하고 관철하라는 중공중의 통지」를 발표하였다.⁴⁹⁾

다른 한편으로는 문예창작에 대한 문제와 몇몇 작품에 대한 평가를 위한 극본창작좌담회를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개최하였다. 후야오방은 2월 12일에 열린 좌담회 마지막 날에 문예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 문예작품의 소재 문제, 문예작품의 평가 문제, 문예와 정치의 관계, 문예계의 역할 등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첫째, 현재 중국에는 신앙위기·신심위기·신임위기에 직면하여 사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을

48)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1980.1.16.)」,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上), 위의 책, 320, 323-324쪽. 梁鳳成, 위의 책, 104-105쪽.

49) 「中共中央關於認真學習貫徹第四次全國文代會精神的通知(1980.1.31.)」, 中共中央組織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知識分子問題文獻選編』, 人民出版社, 1983년, 99쪽.

가져야 한다. 둘째, 현재 공산당과 중국사회와 중국사회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어두운 면도 존재하며, 문예작품은 사실주의적으로 이것을 표현해야 한다. 셋째, 진정한 예술작품이란 사상성과 예술성이 혼연일체가 된 것이다. 넷째, 문예작품은 생활을 예술적 진실에 입각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극 〈만약 내가 진짜라면(假如我是真的)〉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작품성이 성숙되지 못하였으므로 잠시 상연을 중단하고 고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을 ‘독초’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다섯째, 문학제재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 여섯째, 용감한 문예계의 신인들을 배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공산당의 근본 목적은 물질재부를 부유하게 하고 정신재부를 풍부하게 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이다. 또한 문예와 정치의 관계는 이미 덩샤오핑이 말하였고 저우양도 말했듯이, 문예가 정치에 복종하고 종속되어서는 안 되지만 문예가 정치에서 벗어나고 작가가 정치적 책임감을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문예계의 동지들은 4개 현대화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로 공산당원은 그들과 손을 맞잡고 마음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⁵⁰⁾

후야오방이 이렇게 문예계의 사상해방을 강조하자, 곧바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중공중앙 11기 5중전회(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됨)에서 중공중앙 서기처 서기로 임명된 후차오무였다. 그는 1980년 3월에 개최된 좌편 성립 50주년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의 친구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문제이며”, “우리의 문예는 30년대의 혁명적 문화운동의 계속으로 좌익문예이며”, 앞으로 “우리의 문예는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¹⁾

50) 胡耀邦, 「在劇本創作座談會上的講話(1980.2.12.~1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 重要文獻選編 —』(上), 위의 책, 蕭冬連, 위의 책, 227-229쪽. 양평청은 후야오방이 여기에서 ‘2개의 진입’과 ‘2개의 기본점’을 제출했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 진입은 문예창작이 일상생활로부터 더욱 복잡하고 사회의의가 있는 생활 경지로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진입은 더욱 심각하고 더욱 중대하며 보편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사회생활로 들어가야 한다. 첫 번째 기본점은 예술진실이란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진실이다. 두 번째 기본점은 임시적인 것을 영원불변한 것으로 쓸 수 없으며 역사 발전의 변증법을 반영해야 한다. 梁鳳成, 위의 책, 106쪽.

51) 胡喬木, 「携起手來,放聲歌唱,鼓舞人民建設社會主義新生活(1980.3.28.)」, 程中原 主編, 『胡

이어서 왕둥싱을 비롯한 범시파 지지자들이 해임되고 총서기가 된 후야오방 대신 중선부장의 직을 담당한 왕런충은 4월 22일에 “문예계의 일부 동지들이 과격한 정서를 갖거나 부르주아 자유화의 사상을 갖고 일련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급박하게 통제할 수 없고 동지식의 토론과 논쟁으로 점차 인식을 통일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문예방침이란 “문예는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데 우선 공농병을 위해 복무하며”, “문예는 사회주의를 위해 사회주의의 신인들을 배양하기 위해 복무하는 것이 보다 완전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위’방침을 공식화하였다.⁵²⁾ 나아가 그는 5월 6일에 열린 전국 출판공작 좌담회에서 후야오방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였다. 즉 “우리는 문예 작품에 대해 과거 단조롭게 정치내용으로 평론하고 예술성 방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상내용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독창적인 면이나 기교와 예술 수준도 주의해서 단순화를 피해야 한다. 인민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군중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해도 안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좌’의 관점에만 속박되었는데, 현재는 진실보하여 사상 해방이 중요하다.”⁵³⁾

결국 덩샤오핑의 지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야오방과 후차오무의 대립을 거쳐 이 둘을 조정한 왕런충의 주장에 근거하여 『人民日報』는 1980년 7월 26일에 「사론: 문예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한다(文藝爲人民服務, 爲社會主義服務)」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문예정책이 “문예는 정치를 위해 복무한다”는 마오쩌둥의 ‘이위’ 구호에서 “문화·예술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한다”는 덩샤오핑의 ‘이위’ 방향으로 대체되었음을 정식으로 천명한 것이었다.⁵⁴⁾

喬木談文學藝術』, 人民出版社, 2015년, 128-129쪽.

52) 王任重, 「關於文藝方針的提法問題(1980.4.22.)」, 『王任重文集』下, 中央文獻出版社, 1999년, 71-72쪽.

53) 王任重, 「在全國出版工作座談會上的講話(1980.5.6.)」, 『王任重文集』下, 앞의 책, 88-89, 94쪽.

54) 鄧安慶·鄧名瑛, 위의 책, 22쪽; 本書課題組, 『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發展道路』, 94-95쪽.

4. 결론

본고는 '4인방'과 화궈핑 체제가 무너지고 덩샤오핑 체제가 성립되는 1977년부터 시작하여 덩샤오핑의 문화·예술 사상이 성립되는 시기인 1980년까지 중국공산당의 문예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동 시기의 정치적 상황의 전개와 연계해서 살펴보았다. 화궈핑과 덩샤오핑은 정권장악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인 이데올로기 선전을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 자신의 핵심적인 조력자들을 배치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문예정책을 통제하였다.

화궈핑은 '양개범시'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기반을 확보하고자 중선부장 장궈화를 기용하였다. 덩샤오핑은 후야오방이 시작한 '진리표준' 논쟁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정치기반을 장악하였고, 선전공작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1978년 12월에 후야오방을 중선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중선부장 후야오방이 젊은 문예공작자들에게 문예계의 자유로운 활동과 민주를 강조하자 실무공작을 담당한 간부들과 이론공작으로 담당 간부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덩샤오핑은 1979년 3월 28일에 '4항원칙 견지'를 강조하여 문예계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 내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에는 새로운 풍조가 높아졌고, 이것은 '정치표준을 첫 번째 위치에 놓는' 마오쩌둥 문예이론을 고수하던 선전공작자와 이론가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후야오방은 1979년 10월에 열린 제4차 문대회에서 '쌍백'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치표준에 대한 강조를 비판하였고, 반대파는 이에 대해 '안전감'을 결여하였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후차오무를 대표로 한 '좌파'와 후야오방을 대표로 한 '자유파' 사이의 정책 다툼은 덩샤오핑의 조정을 거쳐 '이위(二爲)'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확립된 덩샤오핑 문화건설 사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민을 위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한다"는 '이위'. 둘째, '쌍백' 방침의 견지와 '4항원칙 견지'의 유기적인 통일. 셋째, "문예는 정치에 속할 수 없지만, 정치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은 원칙은 덩샤오핑이 사망할 때까지 고수되었으며,⁵⁵⁾ 중국공산

55) 梁鳳成, 위의 책, 105쪽.

당의 현 문예정책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1980년 7월 26일 『人民日報』의 사론을 통하여 덩샤오핑의 '이위' 문예정책이 공식화되었지만, 당시 문예정책을 집행하던 공산당의 간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두고 분열이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점점 악화되던 사회의 풍기와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문예계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던 사람들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었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야오방은 사회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덩리쥬 노래나 학생들의 장발과 나팔바지 금지를 취소시키는 작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에 힘을 실어주곤 했다.⁵⁷⁾ 후차오무를 비롯한 중선부에 포진한 좌파'들은 '4항원칙 견지' 원칙을 이용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였고, 결국 1982년 바이화의 『고련(苦戀)』 비판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전개되는 양측의 격렬한 논전은 필자의 다음 원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http://cpc.people.com.cn/GB/64162/71380/71382/71386/4837946.html>

<http://sh.focus.cn/msgview/10620/152194244.html> 溫相, 「毛澤東身后的三駕馬車: 叶劍英華國鋒汪東興同盟」, 2004년 7월 26일.

邱石 編, 『解放文選(1978-1998)』上, 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년.

國務院辦公廳秘書局·中央編委辦公室綜合司 編, 『中央政府組織機構』,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1995년.

꾸어모루어 외, 김의진·심혜영·성민엽 옮김, 『중국현대문학전집20: 문학과 정치 — 현대중국의 문학이론』, 서울, 중앙일보사, 1989년

譚宗級·葉心瑜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實錄, 4: 改革與巨變 — 開創現代化建設新局面(1977—1983)』(上),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4년.

鄧力群, 『鄧力群自述——十二個春秋(1975-1987)』, 香港, 大風出版社, 2006년.

56) 王任重, 「文藝必須爲人民服務, 爲社會主義服務(1980.5.9.)」, 『王任重文集』下, 中央文獻出版社, 1999, 96-97쪽.

57) 許保家, 위의 책, 317-318쪽.

- 『鄧小平文選』(1975 — 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년.
- 鄧安慶·鄧名瑛, 『文化建設論 — 中國當代的文化理念及其系統構建』,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98년.
- 로드릭 맥과커 위음, 김재관·정해용 옮김, 『중국현대정치사』, 서울, 푸른길, 2012년.
- 馬立誠, 『最近四十年中國社會思潮』, 北京, 東方出版社, 2015년.
- 文化部政策研究室辦公廳 編, 『中華人民共和國現行文化行政法規匯編(1949—1985)』, 北京, 文物出版社, 1988년.
- 本書課題組, 『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發展道路』,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13년.
- 蕭冬連, 『中華人民共和國史10: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香港中文大學, 2009년.
- 沈壯海, 『文化強國之路』,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2014년.
- 梁鳳成, 『中國共產黨與當代中國文化發展研究』,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13년.
-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當代中國意識形態風雲錄』, 北京, 警官教育出版社, 1993년.
- 王夢, 『不革命行嗎? 原中國文化部長跟你談中國政治』, 臺北, 時報文化, 2013년.
- 王蒙·袁鷹 主編, 『憶周揚』,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8년.
- 『王任重文集』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9년.
- 王洪模 等著, 『1949—1989年的中國: 改革開放的歷程』,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9년.
- 丁守和, 『瞿秋白思想研究』,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5년.
- 程中原 主編, 『胡喬木談文學藝術』, 北京, 人民出版社, 2015년.
- 程中原·王玉祥·李正華, 『1976~1918年的中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년.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 重要文獻選編 一』(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년.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下), 北京, 人民出版社, 1982년.
- 中共中央組織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知識分子問題文獻選編』, 人民出版社, 1983년.
- 奚涪人 主編, 『科學發展觀百科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년.
- 許保家, 『讓思想衝破牢籠: 胡耀邦出任中宣部長的日子(1978—1980)』, 香港, 天行健出版社, 2010년.
- 胡耀邦, 『胡耀邦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2015년.
- 江春澤, 「在耿飆領導的中央宣傳口的日子」, 『炎黃春秋』, 北京, 2010년 4기.
- 顧驥, 「此情可待成追憶—我與晚年周揚師」, 王蒙·袁鷹 主編, 『憶周揚』,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8년.
- 金銀洙, 「중국의 TV방송 導入과 TV 드라마의 定着 過程」, 『中國近現代史研究』66호, 서울, 2015년 6월.
- 鄧小平, 「關於科學和教育工作的幾點意見(1977.8.8.)」, 『鄧小平文選』(1975 — 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년.
- 鄧小平, 「教育戰線的撥亂反正問題(1977.9.19.)」, 『鄧小平文選』(1975 — 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년.

- 鄧小平, 「在中國文學藝術工作者第四次代表大會上的祝辭(1979.10.30.)」, 『鄧小平文選』(1975 — 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년.
-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1980.1.1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 重要文獻選編 一』(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년.
- 馬建, 「改革開放以來的中國文化產業研究: 源頭與脈絡」, 『北方經濟』, 呼和浩特, 內蒙古自治區計劃委員會, 2011년 21기.
- 毛澤東,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1942.5.)」, 꾸어모루어 외, 김의진·심혜영·성민엽 옮김, 『중국현대문학전집20: 문학과 정치 — 현대중국의 문학이론』, 서울, 중앙일보사, 1989년.
- 박영순, 「대작상업 영화의 주선유희와 이데올로기: 〈영웅〉, 〈공자〉를 중심으로」, 민성기 외 공저, 『중국연구의 동향과 쟁점』, 學古房, 서울, 2016년.
- 本刊評論員, 「爲文藝正名 — 駁“文藝是階級鬭爭的工具”說」, 『上海文學』 1979년 4기.
- 嚴文井, 「文藝黑線專政論與陰謀文藝」, 『人民文學』, 1977년 12기, 北京.
- 王任重, 「關於文藝方針的提法問題(1980.4.22.)」, 『王任重文集』 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9년.
- 王任重, 「在全國出版工作座談會上的講話(1980.5.6.)」, 『王任重文集』 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9년.
- 王任重, 「文藝必須爲人民服務, 爲社會主義服務(1980.5.9.)」, 『王任重文集』 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9년.
- 「偉大的轉變和宣傳工作的根本任務」, 『人民日報』 1979년 1월 16일.
- 李劍, 「歌德與缺德」, 『河北文藝』 1979년 6기, 石家莊.
- 이동배·부티탄호영·김기덕, 「중국문화산업 연구동향 — 2009년~2013년 중국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1호, 서울, 2015년 3월.
- 李先念, 「在中央工作會議上的講話(1979.4.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 重要文獻選編 一』(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년.
- 李楊, 「重返新時期文學的意義」, 程光燁 編, 『重返八十年代』, 北京大學出版社, 2009년.
- 李子雲, 「探病中周揚」, 王蒙·袁鷹 主編, 『憶周揚』,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8년.
- 田瑜, 「群衆文化運動的開拓者」, 王蒙·袁鷹 主編, 『憶周揚』,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8년.
- 周揚, 「三次偉大的思想解放運動」, 邱石 編, 『解放文選(1978-1998)』 上, 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년.
- 周揚, 「繼往開來, 繁榮社會主義新時期的文藝 — 在中國文學藝術工作者第四次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79년 11월 20일.
- 「中共中央批轉總政治部〈關於建議撤銷1966年2月部隊文藝工作座談會紀要的請示〉的通知(1979.5.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 重要文獻選編 一』(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년.
- 「中共中央關於認真學習貫徹第四次全國文代會精神的通知(1980.1.31.)」, 中共中央組織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知識分子問題文獻選編』, 人民出版社, 1983년.

- 陳荒煤, 「曉風致陳荒煤的信」, 『人民日報』 1979년 2월 3일.
- 胡喬木, 「携起手來, 放聲歌唱, 鼓舞人民建設社會主義新生活(1980.3.28.)」, 程中原 主編, 『胡喬木談文學藝術』, 北京, 人民出版社, 2015년.
- 胡耀邦, 「理論工作務虛會引言」(1979.1.18.), 『胡耀邦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2015년.
- 胡耀邦, 「思想政治工作要積極地抓(1979.10.15.)」, 『胡耀邦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2015년.
- 胡耀邦, 「在劇本創作座談會上的講話(1980.2.12.~1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 重要文獻選編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2년.

〈中文提要〉

本稿研究了从1977年到1980年邓小平时期中国共产党的文艺政策。中共中央宣传部是中共中央意识形态方面工作的综合职能部门。中宣部是1924年5月成立了, “文化大革命”期间被取消, 1976年10月中央决定回夏。他的主要职能是负责指导全国理论研、学习与宣传工作; 负责引导社会舆论, 指导、协调中央各新闻单位的工作; 负责规划、部署全局性的思想政治工作任务, 配合中央组织部做好党员教育工作, 会同有关部门研究和改进群众思想教育工作。因此掌握中宣部是很重要。

1978年5月胡耀邦开始的真理标准问题大讨论带来了全党和全国人民的思想解放, 是年12月召开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 实现了党和国家工作重心向现代化建设的转移。邓小平是胡耀邦为中宣部部长的任命。中国共产党中央根据新的历史形势和任务, 提出的新的文艺工作的口号, 用以取代沿用多年而过时了的“文艺为政治”的口号。胡耀邦对文艺界人士遭受的创痛有很深的了解和同情, 从上任中宣部长之日起, 他就努力推动文艺政策的调整, 希望以此重新组织文艺队伍。他强调年轻的文艺工作者在创作上的自由, 这是引起了老干部的反对。以胡乔木代表的‘左派’和以胡耀邦代表的‘自由派’之间的矛盾越来越激烈。邓小平明确以“文艺为人民服务, 为社会主义服务”作为新时期文艺工作的根本指针。通常简称为“二为”方向, 是实际上也是对整个文化建设的要求, 规定了文艺工作的总方向; 培养社会主义新人, 促进社会主义社会的进一步完善和发展, 满足人民日益增长的越来越多样化的文化需要。它的提出, 表示着执政党在文化建设指导思想上的重要调整和转变。

对邓小平的文化建设思想做一概括, 其主要内容就是: 第一, 为人民服务, 为社会主义服务的“二为”方向。第二, 坚持“双百”方针与坚持四项基本原则的有机统一。第三, 文艺不能从属于政治, 但不能脱离政治。这些思想邓小平一直到去世均没有改变, 迄今为止, 中国共产党的文艺政策也有很大的影响。

關鍵詞: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 ‘쌍백(雙百)’, ‘이위(二爲)’, 저우양(周揚), 후야오방(胡耀邦), 후차오무(胡喬木), 왕런중(王任重)

〈Abstract〉

Culture and art policy of CCP in the establishment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ased on the new historical situation and tasks, put forward the slogan of the new literary and artistic work to replace the slogan "literary and political service" which has been used for many years. July 26, 1980 "People's Daily" editorial, to convey the spirit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Usually referred to as "two for" direction. To serve the people is to serve the people of the whole country, including the broad masses of workers, peasants, intellectuals, soldiers, cadres and all those who support socialism and love the motherland, except for a handful of hostile elements; Socialism, economy, politics, military, culture and other undertakings of the fundamental needs of service, today, is the great cause of socialist modernization services. The general slogan of "literature and art serving the people and serving socialism" stipulates the general dir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 cultivates new socialist people, promotes the furthe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socialist society, improves the socialist consciousness of communism and the morality of communism To meet the growing and diverse cultural needs of the people, to help people understand and overcome obstacles in the process of socialist modernization, to resist and overcome the influence of the feudal class and bourgeois ideology, to inspire people's morale and inspire people to work together Germany to join the great cause of socialist modernization.

Key Words: 'Erwei', Huqiaomu, Huyaobang, 'Shuangbail', Wangrenchong, Zhouyang

이 논문은 2017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2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2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